

야구 보면서 가장 핫갈리는 순간이 있어요. “올스타전이 언제였지?”, “올스타전 끝나면 그 다음 경기는 바로 어떻게 이어지지?”, “한국에서는 몇 시에 보게 되지?” 이런 질문이 자주 생기는데, 특히 mlb중계를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정 한 번만 제대로 잡아도 스트레스가 확 줄더라고요.



게다가 MLB는 KBO랑 시즌 운영 시점이 달라서, 같은 방식으로 찾으면 놓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MLB 올스타 관련해서 일정 정보를 확인하는 흐름을, 한국에서 mlb중계 챙기는 관점으로 정리해볼게요. “야구중계사이트를 쓴다”는 전제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어디를 먼저 보면 시간을 덜 버리는지까지 같이요. 키워드는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사이트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볼게요.

MLB 올스타전, 그리고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의 첫 관문

공식 기준으로 2026 MLB 올스타전은 7월 14일에 열렸어요. 장소는 필라델피아의 Citizens Bank Park이고, 결과는 AL이 NL을 4-0으로 이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기용 정보”라면, 진짜 중요한 건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중계 타이밍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예요.

올스타전 중계 시간은 FOX 기준 오후 8시 ET로 안내됐어요. 문제는 ET랑 한국이 붙어있지 않다는 점이죠. 검증된 시간대 차이 정보에 따르면 서울은 뉴욕(ET)에 비해 13시간 빠르고, 로스앤젤레스보다 16시간 빠릅니다. 여기서 ET를 뉴욕으로 보면, 오후 8시 ET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가 아니라 “다음 날 아침” 쪽으로 넘어갑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한국은 +13시간이니, 7월 14일 오후 8시 ET는 한국에서 대략 7월 15일 오전 9시 전후로 보게 되는 셈이에요. 물론 방송 시작, 해설 대기, 오프닝 같은 실방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한국에서 아침이나 오전 쪽에 걸린다”는 큰 방향은 잡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마다 야구 보는 루틴이 다르잖아요. 저녁 시간에만 볼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일정 확인이 필수고, 심야나 새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결국 mlb중계 일정 확인은 “그 날 경기를 보느냐 말 것이냐”보다 “내 패턴이 깨지느냐”를 먼저 결정하게 돼요.



“올스타 관련 일정”을 어디서 보느냐, 생각보다 단순해요

올스타전 자체 날짜는 이미 알고 있어도, 실제로 챙길 건 그 전후 일정이에요.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경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경기 흐름 같은 것들. 이런 걸 확인할 때 가장 깔끔한 방식이 있습니다.

핵심은 공식 일정 페이지에 날짜별 경기 정보가 있다는 점이에요. MLB는 공식 사이트에서 2026 시즌 일정과 경기 결과를 제공합니다. 즉 “올스타전이 있는 날”과 “올스타전 전후”를 날짜로 묶어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KBO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별 경기 시간, 중계 TV, 라디오, 장소 정보를 함께 보여줘요. KBO와 MLB를 같이 보거나, 시즌 운영 시점이 달라 생기는 혼란을 줄이려면 “공식 일정 페이지를 기준으로 날짜를 찍고 이동하는 습관”이 꽤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건, MLB는 KBO와 시즌 운영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MLB는 2027 정규시즌 개막일을 2027년 3월 25일로 안내하고 있어요. KBO는 통상적인 한국 야구 운영 흐름이 따로 있으니, 같은 달력처럼 매번 비교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올스타 시즌 중반” 같은 감각을 한국 기준 월로 역지로 맞추기보다는, MLB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mlb중계가 더 어려운 이유, 시차는 생각보다 변수예요

한국 시청자들은 MLB를 볼 때 시차 때문에 ‘계절’보다 ‘시간대’로 더 자주 판단하게 됩니다. 검증된 자료 기준으로 서울은 뉴욕보다 13시간 빠르고 로스앤젤레스보다 16시간 빠르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 말은 뭘 뜻하냐면, 같은 “오후 경기”라는 문구라도, 중계가 잡히는 지역 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아침이 되기도 하고 전날 저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올스타전처럼 ET 기준으로 한 번 딱 잡히면 편하지만, 일반 경기나 팀별 이동 일정이 섞이면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결국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날짜”보다 “몇 시부터 TV를 켜놔야 하냐”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대기 시간”을 포함해서 한두 시간 먼저 틀어두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하이라이트 위주로 늦게 들어와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mlb중계를 볼 때는 단순히 경기 시작 시각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시청 가능한 타임라인에 맞춰서 “그날 몇 시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잡아야 만족도가 높아요.

야구중계사이트를 볼 때, 공식 일정과 같은 레벨로만 체크해도 충분해요

사람들이 야구중계사이트를 찾는 이유는 보통 빠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빠르기만 보고 들어가면 일정 관련해서 실수가 나요.

특히 MLB 올스타처럼 “공식 일정상 날짜는 이미 확정”인데, 중계 채널 표기나 방송 시간대 표시가 달라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중계사이트나 중계 플랫폼을 보더라도, 아래 같은 기준으로 먼저 걸러주면 시행착오가 줄어요.

1. 공식 일정에서 확인한 “날짜별 경기”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2. 실제 경기 시간(한국 시각이 표시된다면 그 값이 자연스러운지)
3. 중계 채널/플랫폼 정보가 같이 있는지
4. 당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가 되면 대충 마음이 편해져요. 반대로 말하면, 이 네 가지가 애매하면 그 사이트는 “볼 때는 편할지 몰라도, 일정 관리에는 불리할 가능성”이 큼니다.

앞서 말했듯이 KBO 공식 일정 페이지는 날짜별 경기 시간, 중계 TV, 라디오, 장소 정보를 함께 보여줘서 국내 경기 확인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MLB도 공식 일정과 결과를 제공하니까, 결국 야구중계사이트는 “편의 도구”로 쓰고, 일정은 공식 페이지 기준으로 한 번만 교차 확인해도 충분하다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올스타전 당일, 무엇을 봐야 일정이 더 선명해지나

올스타전 당일은 “그 경기 자체”가 전부 같아 보여도, 시청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의 감각을 잡는 날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올스타전 결과(이번엔 AL이 NL을 4-0으로 이김)를 알고 나면, 이후에 각 리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올스타전 결과나 하이라이트 같은 정보보다도 “다음에 어떤 팀 경기를 봐야 의미가 있는지”가 더 실전이라는 점이에요.

MLB는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2026 시즌 경기 결과가 제공되니까, 올스타전 이후 특정 날짜를 찍고 들어가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mlb중계 시청 동선과 연결돼요. “올스타전 봤고, 그 다음 날은 누구 볼까”가 감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으로 이어지니까요.

저는 이런 스타일로 움직이곤 해요. 올스타전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며칠만 잡아두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그 사이에 경기 일정이 잡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중계를 이어가는 방식이요. 이러면 올스타 브레이크가 단절처럼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경기로 넘어갑니다.

KBO 일정과 섞어 볼 때 생기는 함정

KBO와 MLB를 같이 챙기는 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KBO 쪽은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별로 경기 시간, 중계 TV, 라디오, 장소 정보까지 제공해서 생활 패턴에 붙이기 쉽습니다. 반면 MLB는 시즌 시점이 다르고, 한국 시각으로 바뀌는 순간 체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는 “KBO에서 보던 달력 감각”을 그대로 MLB에 적용하는 거예요. MLB는 2027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5일로 안내하는데, 이런 식으로 확정된 운영 시점이 다르면, 시즌 중간 이벤트를 한국식으로 맞추려다 엇나갈 수 있어요.

결국 해결책은 하나로 모입니다. KBO와 MLB를 같이 볼 거면, 각 리그의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내가 확인하는 날짜가 정확히 어떤 일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계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잡는 겁니다.

이 방식이 귀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한 번만 루틴이 잡히면 오히려 편해져요. “오늘이 며칠이고, 어떤 리그가 시즌 중인지”를 기억으로 끌고 가는 날보다, 날짜 기준으로 찍는 날이 더 안정적입니다.

시간대 계산은 ‘대략’이 아니라 ‘생활 기준’으로

올스타전은 FOX 기준 오후 8시 ET로 안내돼 있어요. 여기에서 +13시간 차이를 적용하면 한국에서 오전 쪽으로 넘어가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해야 하냐는 질문이 남죠. 제 경험으로는, 방송이 시작되는 시간보다 내가 실제로 TV를 틀 수 있는 시간 기준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출근 전이라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오전에 집중이 어렵다면 아예 다음 타임이나 하이라이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확인을 이렇게 해요.

경기 시작 시각을 보고 끝내지 않고, “내가 최소 몇 시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중계를 선택합니다. 올스타처럼 고정 이벤트는 특히 이 기준이 통하더라고요. 한 번 잘 맞춘 루틴은 다음에도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정리하자면, MLB 올스타는 날짜보다 ‘흐름을 붙이는 법’이 중요해요

이번에 확인한 확실한 정보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2026 MLB 올스타전은 7월 14일, 필라델피아 Citizens Bank Park에서 열렸고, AL이 NL을 4-0으로 이겼어요. 중계 안내 시간은 FOX 기준 오후 8시 ET이고, 한국은 뉴욕보다 13시간 빨라서 한국 시청 시간대는 오전 쪽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MLB는 공식 사이트에서 2026 시즌 일정과 결과를 제공하니까, 올스타전 전후로 날짜를 찍어가며 흐름을 이어가면 일정 관리가 편해집니다.

여기에 KBO 일정까지 섞는다면, 시즌 운영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둬야 해요. MLB의 경우 2027 정규시즌 개막을 3월 25일로 안내하고 있으니, 한국 야구 감각으로 무작정 대입하기보다는 공식 일정 기준으로 확인하는 [mlb중계 보는곳](#) 습관이 안정적입니다.

결국 mlb중계는 “어디서 틀어주냐”도 중요하지만, 더 큰 차이는 “언제부터 내가 움직여야 하나”에서 납니다. 올스타전은 그 기준을 잡기 딱 좋은 이벤트라서, 이걸 제대로 한번 경험해두면 이후 경기 챙기는 속도가 빨라져요. 야구 중계사이트를 쓰든, 공식 일정으로만 움직이든, 날짜를 중심으로 루틴을 만들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수월해집니다.